경제혁신 3개년 계획 |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 대한민국 재도약의 힘, 창조경제

경 제 혁 신 | 희망의 새시대

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 http://www.motie.go.kr

2016년 7월 22일(금요일)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7.22(목)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6. 7. 21. (목요일)	담당부서	전력진흥과
담당과장	김성열 과장 (044-203-5360)	담 당 자	권덕중 서기관 (044-203-5361)

주형환 산업부 장관,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주재

- **에너지기업·금융권과 협력하여 에너지신산업 투자와 해외진출 모색**
- **「에너지신산업 금융투자 자문단」을 구성하여 금융권 투자지원**
- **한전 등 공기업 프로젝트부터 민간·금융의 공동참여 확대**

□ **(개요)**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2일(목)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를 개최하고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업간 협력방안을 모색**

○ 이날 회의는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을 위한 **정부의 정책설명 강화**, 금융권의 에너지신산업 투자지원을 위한 **금융투자 자문단 구성**, 신산업 분야별·국가별 **실무 얼라이언스 구성·운영**, **해외프로젝트 공동 개발** 등을 집중 논의

○ 얼라이언스에는 한전·발전사 등 **공기업**, 태양광협회·LS산전·포스코건설 등 **에너지신산업 민간기업**, 금융투자협회·미래에셋대우·맥쿼리코리아 등 **민간 금융기관들**과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KOTRA·중진공 등의 **지원기관**이 참여

○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 투자확산과 해외진출 가속화**를 위해서는 현장의 기업들과 금융권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공기업-민간기업-금융권의 얼라이언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

□ **(그간의 노력)** 산업부는 금년 초부터 **에너지신산업 규제완화와 집중지원**을 모토로 에너지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 연두 업무계획,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프로슈머 등 **에너지신산업의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수익성 제고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

○ 또한, 전력, 가스, 석유 등 에너지산업 전반의 규제를 다시 짚어보는 **「에너지 규제개혁 협의체」**도 구성·가동

○ 특히, 7월 5일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을 통해 신산업 투자 확대, 에너지시장 규제개혁 등 과감한 규제완화와 집중지원 시책 발표

* 주요내용: RPS 의무이행비율 상향조정, AMI 전국보급, ESS 할인요금제 연장 등

○ 규제완화와 집중지원은 전기차·수소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지능형계량인프라(AMI) 등 민간의 투자수요가 있고 미래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를 우선지원

try of Trade, try and Energy

□ **(얼라이언스)** 주형환 장관은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에너지신산업 정책의 요체는 **규제완화, 집중지원, 그리고 융합 얼라이언스**라고 강조

○ 특히, 에너지신산업이 **해외시장에 나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금융이라고 평가**

- 국내 신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지원**은 물론 해외진출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금융자문과 파이낸싱은 금융기관의 몫**

○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공기업과 민간기업, 금융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팀 코리아(Team Korea)로 힘을 모아 함께 진출할 필요성도 강조**

- 팀 코리아를 통한 해외진출은 수출입은행과 코이카(KOICA)와 같은 **유·무상 원조 기관**,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같은 **국제기구와의 전략적 협력도 필요**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7-27 16:20:38

○ 주장관은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사업을 찾고, 공동 프로젝트 발굴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기회**가 되도록 지원을 다하겠다고 천명

□ **(논의내용)**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기업과 금융기관 등은 국내투자 확대와 해외진출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 **(공기업)** 공기업이 개발 중인 **신재생발전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해외진출시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 당부**

- (발표사례1) 이날 한전은 해외에서 추진 중인 20개 에너지신산업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특히 **현재 개발단계인 6.7억달러 규모의 10개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 (미국) FR용ESS 구축, 괌ESS 구축, 콜로라도 태양광, (중동·아시아) 사우디 스마트 그리드, UAE 아부다비 태양광, 타지키스탄 AMI 구축, 베트남 마이크로그리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마이크로그리드, (중남미) 페루 마이크로그리드, 에콰도르 전기차 충전

- (발표사례2) 서부발전은 미얀마, 베트남, 이란, 파푸아뉴기니, 라오스 등의 가스복합발전·수력·태양광 사업 등을 소개하며, **금융기관의 신속한 투자결정 필요성 건의**

  · 아울러, 사업대상 국가 대부분이 일반적인 기준에서 투자 부적격 국가로 분류되므로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위한 기준 수립 필요성 건의**

○ **(민간기업)** 금융권의 **유연한 담보조건 제공**, 저금리 대출 등 **에너지신산업 특화 금융상품 개발,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희망

- (발표사례1) LS산전은 그간의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송·변전 유상원조 사업기간 단축,** 송변전 사업규모 확대, **중국펀드**(2~3%) **보다 높은 현재 국내 수출신용기관의 지원 금리 조정** 등을 건의

  · 아울러, 한전 등 공기업이 추진하는 해외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공동참여 기회 확대도 요청**

- (발표사례2) 한화큐셀은 사업 리스크가 큰 신흥시장의 경우 해당국의 보증이 필수적이므로 **현지 정부의 보증 확보를 위한 우리정부의 주도적 역할 건의**

  · 또한, 태양광 사업 수주 경쟁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유럽·중동계 컨소시엄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공격적인 지원이 바탕**이 되고 있다고 설명

○ **(금융기관)** 에너지 분야 전문가 협의기구 구성 등 에너지신산업 부문과 금융부문의 **정기적 정보교환 필요성 제기**

- (발표사례) KB국민은행은 교보생명, 한화생명과 공동으로 양양의 대규모 풍력발전단지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국내 최초로 설치**하여 **신재생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프로젝트**를 추진

* ESS 설치시 신재생의무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1배에서 5.5배로 상승

try of Trade,
try and Energy

  · 양양 프로젝트는 민간은행(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 제공), 민간기업(사업 개발·건설·운영), 공기업(REC 구매계약) 간 **얼라이언스의 모범사례**로서 에너지신산업이 **금융권에 새로운 투자처로 부각**되는 계기로 작용

  · 다만, 에너지신산업이 실제 프로젝트 금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유망기술 및 사업모델의 수익성 여부 확인이 애로**로 작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별도의 검증기구·검증절차 마련, 기술금융에 대한 보증기구**(신보·기보) **활용 등을 건의**

  · 또한, 대표적인 장기투자사업인 에너지신산업 분야 투자·융자에 **장기외화 조달도 애로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수출신용기관의 다양한 대출채권 설계, 개도국 국가 및 환 리스크 회피 지원도 요청

□ **(향후계획)**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가 **기업간 공동프로젝트 개발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을 다할 계획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7-27 16:20:38

○ 우선, 연초부터 최근까지 수립된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지원정책의 세부내용과 효과를 필드의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소개

* 지역별 순회「에너지신산업 정책 설명회」개최 (하반기)

○ 에너지전문가 등으로 「**에너지신산업 투자자문단**」*을 **구성**하여 기술·시장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 **금융기관 에너지신산업 투자 지원**

* (구성) 한전, 발전사, 전력거래소, 에너지기술평가원, (기능) 금융권의 투자심사 시 에너지정책 및 규제, 기술, 시장구조 등을 자문

○ 아울러,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발전·송배전 등 **분야별로 실무 얼라이언스를 운영**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기반한 협력을 확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김성열 과장(☎ 044-203-5260), 권덕중 서기관(☎ 044-203-5261)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에너지 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개최 계획

Ⅰ. 추진배경

□ 공기업·민간기업·금융기관 등 **에너지신산업 주요 플레이어 3각 편대 얼라이언스 구축**

□ 국내 공동 투자 사업·해외진출 **협력 사업 발굴과 조기성과 창출**

Ⅱ. 출범식 개요(안)

□ **(일시·장소)** 2016. 7. 22(금) 08:00~10:00 / 서울 플라자 호텔(22층)

□ **(참석대상)** 전력 공기업, 신산업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

○ **(공기업)** 한전, 남부·서부·한수원 등 발전 6사

○ **(민간기업)**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송배전, 전기차, 스마트그리드 등

○ **(민간금융)** 은행, 증권, 펀드 등 ○ **(정책금융)** 수은, 무보 등

○ **(컨설팅·수출지원기관)** 맥킨지, KOTRA

try of Trade
try and Energy

□ **(진행)** 신산업 대책 소개, 국내외 분야별 협업과제 제안, 주요 협업모델 발굴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08:00~08:10(10′)	① 인사말씀	산업부 장관
08:10~08:20(10′)	② 에너지 신산업 종합대책 소개	에산국장
08:20~09:00(40′) (기관별 각 5분)	③ 분야별 협업 과제 제안	
	(ⅰ) 전력 공기업 : 對민간기업/금융기관 협력사업 ⓐ 한전 ⓑ 발전사 대표	기관 대표
	(ⅱ) 민간기업 : 對공기업/금융 협력사업 ⓐ 태양광 ⓑ 송배전업체	한화큐셀, LS산전
	(ⅲ) 금융기관 : 對공기업/민간기업 협력사업 ⓐ 은행 ⓑ 증권/펀드	국민은행, 미래에셋자산운용
09:00~09:55(55′)	④ 종합토론	산업부 장관
09:55~10:00(5′)	⑤ 마무리 말씀	산업부 장관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7-27 16:20:38

참고 2 「에너지 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참석자(안)

연번	구분		소 속	직위	성 명
1	정부		산업부	장관	주 형 환
2				에너지자원실장	채 희 봉
3				에너지산업정책국장	김 용 래
4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나 승 식
5				전력진흥과장	김 성 열
6				신재생에너지과장	이 진 광
7	전력 공기업		한전	부사장	유 향 열
8			수력원자력	사장	조 석
9			남동발전	사장	허 엽
10			중부발전	사장	정 창 길
11			서부발전	사장	조 인 국
12			남부발전	사장	윤 종 근
13			동서발전	사장	김 용 진
14	민간기업	전기차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 광 식
15		태양광	태양광협회	회장	이 완 근
16			한화큐셀코리아	대표이사	차 문 환
17			OCI	사장	김 재 신
18			에스에너지	대표이사	홍 성 민
19		ESS	LG화학	전무	장 성 훈
20			이엔테크놀러지	대표이사	이 태 식
21		발전·송배전	LS산전	대표이사	김 원 일
22			효성	사장	문 섭 철
23		IoT/AMI	LG전자	사장	이 상 봉
24		IT/SI	LG CNS	부사장	김 태 극
25		컨설팅	맥킨지	대표	최 원 식
26	금융기관/지원기관	은행	은행연합회	회장	하 영 구
27			국민은행	부행장	전 귀 상
28			우리은행	부행장	김 홍 구
29			하나은행	부행장	윤 규 선
30			산업은행	부행장	전 영 삼
31			수출입은행	부행장	장 영 훈
32		증권사/펀드	금융투자협회	회장	황 영 기
33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홍 성 국
34			맥쿼리코리아	대표이사	김 용 환
35			KB자산운용	대표이사	이 희 권
36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	정 상 기
37			골든키자산운용	대표이사	김 석 현
38		금융지원/마케팅	무역보험공사	사장	김 영 학
39			KOTRA	부사장	이 태 식

참고 3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산업부 장관 메시지

1. 인사말씀

반갑습니다.

에너지신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한전과 발전공기업,
민간의 전기차,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송배전 업체,
그리고 은행, 증권, 자산운용사를 포함하는 금융기관의
대표와 자리를 함께 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try of Trade,
try and Energy

2. 그간의 노력과 성과

오늘 융합 얼라이언스로서는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지난번 약속드린 대로
2월부터 민간과 함께 에너지규제개혁협의체를 조직·운영하면서
에너지 분야의 규제를 근본적으로 짚어보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제거해
에너지신산업을 더욱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7-27 16:20:38

이렇게, 에너지 규제개혁 작업의 결과를 반영하면서
에너지신산업 투자확대, 에너지시장 민간참여 확대,
에너지신산업 해외진출 촉진 등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최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주요내용) 소규모 신재생의 전력망 접속 무조건 허용, RPS 비율 상향, ESS 저장전력 소비자 판매 허용, 피크 절감 ESS 할인요금제 적용기간 대폭 연장, 태양광 연계 ESS에 REC 가중치 부여, 전력·가스 지능형계량기 전면 보급 등

아울러, 전기차의 국내시장 확산과 수출확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 완비,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차 발전전략」*도 내놓았습니다.

* (주요내용) 아파트·공공장소 등 충전인프라 구축,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 3년간 50% 감면, 구입 보조금 상향(1,200만원→1,400만원),유료도로 통행료·주차비 할인, 공공기관 전기차 구매비율 상향 (25%→40%) 등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에너지신산업 정책의 요체는
규제완화, 집중지원, 그리고 융합 얼라이언스입니다.

그간 규제완화와 집중지원은
전기차·수소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지능형계량인프라(AMI) 등
민간의 투자수요가 있고
미래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를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집중지원에 힘입어
이미 손에 잡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 태양광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퍼센트 이상이 증가한 17억불을 달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전체로는 상반기 21억불이 넘는
수출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 신재생 수출(백만불) : ('12) 2,523 → ('13) 2,606 → ('14) 3,059 → ('15) 3,104 → ('16상) 2,130

또한, 금년 상반기 전기차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67퍼센트가 늘어난
1억 5천만불의 성과를 거두었고,
대표 수출품목인 에너지저장장치도 상반기에
1억 3천만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 전기차 수출(백만불): ('12) 0.25 → ('13) 57 → ('14) 137 → ('15) 340 → ('16.1~5) 149
* 에너지저장장치 수출(백만불): ('15) 187 → ('16상) 130

try of Trade,
try and Energy

속도의 수출 신상세에서 보듯이
에너지신산업은 새로운 수출산업으로서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도 과거와는 다른 패러다임에서
바뀌어져가고 있습니다.

에너지수급안정과 산업경쟁력 지원이
전통적 에너지정책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환경보호와 소비자 후생까지 고려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7-27 16:20:38

이러한 정책기조를 반영해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석탄화력 성능개선 및 환경설비 투자,
노후석탄 10기 폐지를 포함하는
석탄발전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존 석탄발전소의 효율을 높이고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리트로피팅(retrofitting) 투자,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지는
에너지신산업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회입니다.

발전소의 성능개선과 환경투자를 지원하는
새로운 에너지서비스 산업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송배전과 발전소 운영을 포함하는
에너지서비스 산업도 확실히 키우겠습니다.

최근 산업부가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대책으로 2020년까지 42조원,
석탄화력 성능개선 및 환경설비 투자,
노후 석탄화력 폐지를 담은 석탄발전 대책까지 포함하면
2030년까지 최소 52조원 규모의
에너지신산업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3. 융합 얼라이언스의 역할

이렇게 투자 확대로 에너지신산업의 국내시장이 창출되면
새롭게 형성된 국내시장을 토대로 세계시장에도 진출해야 합니다.

에너지신산업이 해외시장에 나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금융입니다.

정부는 규제완화와 집중지원으로 여건을 조성하지만
국내 신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지원은 물론이고
해외진출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금융자문과 파이낸싱은
금융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너지신산업 정책의 3대 요체 중의 하나인
융합 얼라이언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금융은 물론이고
융합 얼라이언스의 취지를 살려
모든 기관들이 힘을 합쳐야합니다.

에너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만이 아니라
공급기업 간의 협력도 필요하며
팀 코리아(Team Korea)로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try of Trade,
try and Energy

팀 코리아를 통한 해외진출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협력,
에너지 기업과 금융기관 간의 협력만이 아니라,
수출입은행과 코이카(KOICA)와 같은 유·무상 원조 기관,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 개발은행(AD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과 같은
국제기구와의 전략적 협력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사업을 찾고,
공동 프로젝트 발굴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7-27 16:20:38

4. 정부의 각오와 당부

어제 하루 종일 제주에서
전기차 현장과 풍력 발전단지를 돌아봤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올해만 자체적으로
4천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려
바람과 태양으로 전기차를 굴리겠다는
제주도의 의지와 노력을 보면서
에너지신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봤습니다.

정부는 제주도에서 전기차 사업의 성공모델을 이끌어내고
제주도를 전기차 수출의 교두보로 삼겠습니다.

* 2018년까지 전기버스 120대 도입, 주유소 전기차 충전사업 제주도부터 실시,
  전기렌터카 보조금 허용 등

오늘의 얼라이언스가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이 에너지신산업의 메카가 되고
대한민국이 에너지신산업 해외진출의 선도국가가 되는
그 날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가
조속히 하나씩 둘 씩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민간기업, 금융기관, 그리고 공기업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와 활용을 당부합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4 한전의 주요 해외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현황



try of Trade
try and Energy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7-27 16:20:38